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8년
2019년 10월 01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 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 강남 라00944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3년 제 239호

제 13회 불교총지중 경로법회 경북 청송에서 9월 25일부터 1박 2일간, 전국서 500여명 힐링의 한마당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 정사)이 주최하는 불교총지중 경로법회가 경북 청송 대명콘도에서 9월 25일, 26일 1박 2일 간 성황리에 열렸다. <관련기사 3편>

전국 사원에서 모인 65세 이상 교도들과 자원봉사 500여명이 참석하고, 종령 범공 예하,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전국 스승과 교무들이 동참해 자리를 빛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불교총지중 경로법회는 2017년 경주 법회 이후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이해, 경로 효친 사상의 실현과 교도 평생 복지에 구현이라는 실천에 한 걸음 더욱 바짝 다가섰다. 종령 범공 예하는 개회식사를 통해 『분별선악소기경』을 인용, “효친 하는 사람은 첫째, 벼슬을 하게 되면 좋은 직책을 맡을 것이요, 둘째 관직에 있으면 속히 승진을 하며, 또 백성들이 그를 만나면 기뻐하고 찬탄한다. 셋째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날 것이며, 제천이 모두 그를 옹호한다. 다섯째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왕자나 공경대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며 효친의 중요성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인사말에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며, “교도들께서 안 가보신 곳으로 모시고 싶었다. 규모가 작아 여러모로 불편할 수 있으나 너그러운 이해를 당부하며, 온전이 잘 되어 있어 즐거움과 힐링이 함께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1부는 방우정 강사의 ‘웃음과 함께 소통하는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서가비 팝 플루티스트의 식전 공연과 하이лай트인 전통 공연 김수경 소리꾼과 이미테이션 가수 현철의 노래로 흥겨운 한마당의 절정을 이뤘다.

<청송=박재원 기자> 전국 사원에서 경로법회에 참석한 교도들이 함박 웃는 얼굴로 호 잔치를 즐기고 있다.



전국 사원에서 경로법회에 참석한 교도들이 함박 웃는 얼굴로 호 잔치를 즐기고 있다.

불교총지중 제94회 추계강공회 개최 22일부터 사흘간, 전국스승 한자리에

불교총지중 제94회 추계강공회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총지중 서울 본산총지사(주교: 원당 정사)에서 열린다. 불교총지중 전국 승직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매년 2회 개최되는 강공회는 승단 의사 결정과 종령 강훈, 일반 교육 등을 시행한다.

제 94회 추계강공회는 22일(화) 오전 10시부터 원의회 및 재단이사회를 시작으로 오후 1시부터는 종의회가 열린다. 본격적인 강공회는 23일(수) 오전 9시 개강불사로 시작된다. 이에 앞서 전국 승직자들은 총지사 서원당에서 새벽 6시 공식 불공을 올린다.

개강 불사 후 종령 범공 예하의 강훈에 이어 승직자 교육이 오후 4시 승단 총회전까지 진행된다. 금번 승직자 교육은 한국 불교사를 통해 총지중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공회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범공 정사가 진행되는 승직자 교육이 있다.

이후 오전 11시 20분부터는 종단에서 열반하신 모든 스승들을 추선하는 합동추선불사가 봉행되며, 종강불사 후 해산하게 된다.

키워드 검색으로 종단 역사 한눈에 본다 ‘총지중보’ 디지털화 프로젝트 본격 착수

인터넷에서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25년 간 불교총지중의 행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불교총지중 통리원(원장: 인선 정사)은 IT업체인 ㈜메디어커넷(대표: 김금용)과 지난 17일 ‘총지중보 디지털화’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문서 디지털화 개발에 착수했다.

1995년 창간된 ‘총지중보(이하 중보)’는 금번 10월호를 맞아 총 239회를 발간하였는데,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간행물로만 보관되어 있어, 사실상 기록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중보 원정대성사는 1907년 1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으며 1972년 12월 24일 불교총지중을 창중하고 불교의 생활화와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힘쓰던 중 1980년 9월 8일 열반에 들었다.

그램으로 제작되어 사용자들은 홈페이지에 연결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키워드만으로도 기사와 사진 등으로 총지중의 역사를 찾아 볼 수 있다.

또 금번 디지털화는 창중 50주년을 앞두고 통리원이 계획 중인 ‘종단 50년史’ 발간의 주요 자료를 활용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대형 검색 엔진 사이트와 연계를 갖고 총지중 디지털 홍보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통리원 교정부장 승원 정사는 “금번 디지털화는 총지중의 역사를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대정신에 맞는 총지중의 효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중보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내년 1월 말 완료를 목표로 10월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간다.

이번호는 총8면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종조 원정대성사 39주기 멸도절 추선 법회

9월 8일 전국서, 비로자나부처님 가지력으로 추복



종조 원정대성사 39주기 멸도절 추선 법회가 지난 9월 8일 총본산인 서울역 삼동 총지사 원정기념관을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이날 총지사에서 봉행된 추선 법회에는 종령 범공 대종사,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서울과 경인교구 스승과 교도 150여 명이 참석해 종조 원정대성사를 추선하고 종조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로 봉행되었다.

통리원 총무부장 원당 정사의 집공과 재무부장 덕광 정사의 사회로 봉행된 추선불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유가삼밀 의례에 따라 진행되고, 종조님의 육성법문을 듣는 순으로 이어졌다. 또 승단과 교도들은 종조 원정대성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 밀교의 재도약과 불교 중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한마음으로 다짐했다.

종령 범공 예하는 추선사를 통해 “오직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추복 하옵고 이제 간소한 법식과 화과전을 이루었아오니 생존하실 때와 같이 감람하시와 흡향 하시옵소서.” 발원하고, “종조님의 훈시였던 시시불공 사사불공 처처불공의 실천법으로 생활시불법 불법시생활의 진리를 체득하고,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여 세간고락에 초연하는 자기

의 인생관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법어를 내렸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종단 창중 50주년을 맞아 내년에 종조님 일대기를 출간할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종조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에 전 교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종조 원정대성사는 1907년 1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으며 1972년 12월 24일 불교총지중을 창중하고 불교의 생활화와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힘쓰던 중 1980년 9월 8일 열반에 들었다.

중/조/법/어

노여움을 이기는 것은 인욕 뿐이요. 악행을 물리침은 선행 뿐이다.

지면안내

2면 내마음의 등불 3면 경로법회 5면 역삼한담 6면 불교와 드라마

제94회 추계강공회

교화와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총기 48년 10월 22일(화요일) ~ 24일(목요일)

장소 총지중 통리원

대상 총지중 전국 승직자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 02)552-1080~3 | www.chongji.or.kr

불교총지종 50년 史 다큐멘터리 제작

BTN과 손잡고 크랭크인, TV 방영 예정

2021년도 불교총지종 50주년을 맞아 종단 반세기 역사를 한눈에 내다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또 불교TV에도 특별 방송된다.

총지종 통리원(원장: 인선 정사)과 불교TV는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마치고, 계약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큐멘터리는 불교총지종의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본 이념 바탕으로 삼고, 종단의 창종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종단의 역사를 비롯해 현재 한국 밀교의 총본산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는다.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총 45분 내외로 만들어지며, 불교TV 방송으로 편성되어 불교총지종이 전국 안방에 소개된다. 이를 위해 불교TV는 다큐멘터리 제작 베테랑급 PD와 구성작가, 그리고 전문 성우, 다큐멘터리 전문 CG팀이 포함되는 제작단을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

간다. 불교TV는 다큐멘터리 대비(2017년)로 제51회 휴스턴국제영화제 대상, 은밀한 의식 불복장(2015년)으로 불교 언론문화 대상 등 불교 영상물 제작 관련 교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판이다.

다큐멘터리 제작단은 1년 간 불교총지종이 주관하는 각종 법회를 비롯 불공, 행사, 회의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여, 현장을 생생히 기록할 예정이다.

불교TV 윤정현 국장은 "다큐멘터리

는 불자와 국민들에게 불교총지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교TV도 방송을 통해 총지종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작 소감을 밝혔다.

한편 금번 다큐멘터리 외에도 5분 내외 단편 영상물이 함께 만들어져 50주년 기념 법요식은 물론 SNS,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불교총지종 홍보에 다방면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한·일 불교계 양국 관계 개선 노력

우호 교류, 공동 성명서 발표 합의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장 홍파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불교 대표단(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지민스님, 상임이사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스님,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 향운스님)이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일한불교교류협회 회장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인사들과 회담하며 경색된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대표단은 7일 일한불교교류협회 회장 후지타 류조스님과 부회장 시바타 테츠켄스님,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스님을 예방하고, 40년 가까운 양국불교의 우호 교류를 기반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개선에 불교계가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양국불교계는 이달 20일 경까지 일본측의 최종 준비를 통하여, 양국불교계의 공동 성명서를 함께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긍정적인 인도적 노력으로 일제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유골봉환과 관련한 일본 불교 대표단으로 일한불교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스님, 사무차장 오나베 호정스님, 전일분불교회 이사장 카마다 류분스님, 사무총장 바타 테츠켄스님,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스님을 예방하고, 40년 가까운 양국불교의 우호 교류를 기반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개선에



<사진=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조선의 성보' 금당사 괘불 특별공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0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문스님)은 지난 9월19일 오후3시부터 10월10일 오후5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보물 제1266호 진안 금당사 괘불을 특별 공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9월3일 시작해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 '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오악산 금당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조계종 제17교구 금당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천년고찰로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하며 마이산으로 오르는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 금당사에는 금번 금당사괘불탱 외에도 전라북도 유형문화

재 제18호 금당사목불좌상, 문화재자료 제122호 금당사석탑이 모셔져 있다. 금당사 괘불은 길이 약 8.7m, 폭 약 4.74m 크기로 1692년(숙종 18)에 명원, 허헌 등 4명의 비구스님이 제작했다. 이 괘불은 원형두광에 거신광배를 지닌 본존불로 연꽃가지를 들고 있는 독존 형식의 보관불이다. 채색이 화려하고 유려한 모습으로 17세기 후반의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는 걸작으로 꼽힌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금당사와 인연이 깊은 보물 9건, 유형문화재 8건, 등록문화재 1건, 민속문화재 1건 등 94건 118점의 문화재도 만날 수 있다.

내 마음의 등불

정각사 명진 전수편

마하승기율(摩訶僧祈律)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공덕을 증장하는가? 어떠한 사람이 착한 곳에 이르며 어떠한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며 어떠한 사람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훌륭한 공덕이 불어납니까? 부처님께서 계승으로 대답하셨다.

“사람 없는 길가에 좋은 샘을 파두고 동산을 만든 후에 과실나무 심어서 청량한 나무숲에 못중생 쉬게 하고 다리와 나뭇배로 중생을 건네주며 보시와 계행과 지혜를 함께 닦아 탐하여 인색한 그 마음을 버리면 덕이 밤낮으로 항상 불어나서 천상에 태어나서 무량한 복 받으리.”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정각사 명진 전수님은 다음 주자로 경북 선림사 도관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BBS 제10대 사장 후보 공개모집

10월 7일부터 서류 접수, 진흥원 복수추천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재)불교방송 측의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 추천 요청에 따라 불교방송(BBS) 제10대 사장 후보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공개모집 응모에는 후보자 본인 이외에 추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후보자 자격 요건은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불자이며, 불교 현대화의지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비전 제시 역량을 가지고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서 방송의 경쟁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경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륜 및 불교방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인사이다.

10월 7일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하며, 후보자에 대해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진흥원 이사회에서 최종 2명의 후보자 선정 후 (재)불교방송 이사회에 복수 추천할 계획을 확립한다.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종도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육자의귀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경 정사 지음 /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구입문의 | 02-552-1080~3

제 13회 경로법회

내 나이가 어때서~ '불공'하기 딱 좋은 나인데~ 卍
박수와 환호, 한바탕 웃음과 감사의 큰 잔치



전국 사원에서 모인 65세 이상 교도와 자원봉사 500여명이 제 13회 불교총지중 경로법회에 참여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본 행사에 앞서 불공중이다.



"참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통리원 총무부장 원당 정사의 집공으로 진행 중인 개회식에서 통리원장 인선정사가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중령 법공 예하께서 오랜만에 만난 정각사 교도와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계시다. 경로 법회는 효잔치 이상의 만남과 소통의 징검다리다.



명진 전수의 지휘에 맞춰 열여덟 분으로 구성된 부산 정각사 바라밀 밤벨연주단이 특별 공연 중이다. '창교가'를 연주할 때는 벽찬 가슴으로 모두 합창했다.



가수 현철이면 어떨고, 현철이면 어때라, 기다려온 모두의 한마당. 빠른 스텝, 어깨춤을 덩실덩실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잔치집 분위기를 고품격으로 내어주시는 전통 차와 다과의 차림. 늘 햇살 같은 얼굴로 따뜻한 차잔 내어주시는 부산 정각사 다도회 불보살님들.

★ 경로법회 출연진 ★



방우정 강사



서기비 팝 플루티스트



소리꾼 김수경



현철 이미테이션 가수 현철

칼럼 지혜의 눈

서양의 근대화와 불교

나비효과,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 닮아 불교적 가르침, 인류 미래에 여전히 중요

16세기에서 18세기는 서양이 바야흐로 세계를 제패하고 본격적인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입니다. 1492년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고 바스쿠 다 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달한 이후 서양은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에서 엄청난 재화를 약탈하게 됩니다. 이를 '본원적 축적'이라고 하는데 서양이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하는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예전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유럽의 아메리카 침략을 신대륙의 발견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도 유럽 중심적 시각이 담겨있다는 비판으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교과서에서는 지리상의 발견 또는 신항로의 개척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서양에 의한 신항로의 개척이후 서양은 기독교를 전도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됩니다. 그 중에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중국의 지식인을 전도하기 위해 중국 사상에 대해 연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유교 경전이 서구언어(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서양으로 보내집니다. 그러한 번역자들은 조금씩 일반인들에게 유포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계몽사상의 가장 열렬한 사상가인 볼테르나 독일의 사상가인 볼프강 같은 사람들이 중국 문명의 열렬한 예찬자였습니다.

서양의 근대는 동시에 기독교적 세계관의 탈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탈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성리학의 무신론적 세계관이 영향을 주어 이신론(Deism)이 성립하였다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이런 흐름속에서 중국풍의 문화예술이 유럽 여러나라에 널리 유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19세기에 들어와 청나라가 아편전쟁의 패배로 몰락하는 사건을 전후로 동양에 대한 열의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이런 세계사적 흐름과는 별개로 성리학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진남북조와 수당에 걸친 중국의 중세시대는 불교가 중국 사회에 주류적 사상의 위치에 올라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시기였습니다. 중국에 들어온 수많은 종교와 사상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중국 사상의 기반을 흐든 사상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교는 중국화하여 선종(禪宗)을 탄생시켰습니다. 같은 시기 유교는 형식적 예교 내지 국가 운영의 원리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일단의 유학자들은 불교의 교리를 흡수하여 새로운 유학(신유학(新儒學), neo confucianism)을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의 이기론(理氣論)은 성리학의 세계관으로 토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기론은 화엄경의 이사(理事)의 개념을 빌어다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리학은 이기론을 기반으로 심성론 수양론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대승불교 사상도 함께 연구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불교의 내용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성리학을 매개로하여 서구 근대사회의 사상적 배경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지요. 더구나 근대 이후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루어진 과학적 세계관은 놀랍게도 불교의 교리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나비효과는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의 판박이로 보입니다. 또한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명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명상은 불교의 선(禪)과 공통분모가 매우 많지요.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종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여전히 종교가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근대 이전의 중세시대만큼 절대적이지도 않고, 있다하여도 영향력은 개인의 정서적 측면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기왕의 교과서에서 다루는 세계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불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문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종교보다도 현대사회가 가진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 내지는 완화시키는데 불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학문적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교적 가르침은 여전히 인류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2020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법인명	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비고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국어	1	
		수학	1	
		생물	1	

2. 응시원서 접수※ 우리 법인은 공·사립 동시지원 가능

- 가.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 2019. 10. 21.(월) 09:00 ~ 10. 25.(금) 18:00(5일간)
-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9. 10. 26.(토) 13:00 ~ 10. 28.(월) 18:00(3일간)

다. 응시원서 중복지원 금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2020학년도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는 각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국·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

라. 접수방법

- 부산광역시교육청[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edurecruit.pen.go.kr>) - '중등교원채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배너마당 - 중등임용'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1차 + 2차 일부 위탁>

제1차 시험 : 2019. 11. 23.(토)

- 시험장소 공고 : 2019. 11. 15.(금)10:00 예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새소식→고시/공고) <http://www.pen.go.kr>

제 2차 시험 : 2020. 1. 21.(화)

- 시험장소 공고: 2019. 12. 31.(수) 10:00 예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새소식→고시/공고) <http://www.pen.go.kr>
- 동해중학교 홈페이지 <http://psdonghae.ms.kr/>

※ 상기 시험일정(날짜, 장소, 시간 등) 및 기타 시험 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이나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니 동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합격자 발표

구분	일자	장소
제1차 시험 합격자	2019. 12. 31.(화) 10:00 예정	동해중학교 홈페이지 http://psdonghae.ms.kr/
최종 합격자	2020년 2월 중 예정	

※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학교법인의 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도현 정사

인식은 실상보다 때로는 맥락으로 '지각'

12 B 14 A B C

그림 1-1

그림 1-1의 글자를 읽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이 '십이, 십삼, 십사', 그리고 '에이, 비, 씨'라고 읽을 것이다. 그러나 13과 B를 자세히 보면 둘의 형태는 똑같다. 그런데도 숫자 속에서는 13으로, 영어 알파벳 문자 속에서는 B로 지각된 것이다. 숫자와 문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지각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앞뒤의 맥락 때문에 동일한 인식대상이 숫자 속에서는 숫자로, 문자 속에서는 문자로 지각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거나 지각할 때 보여주거나 혹은 자극을 주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거나 혹은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그림 1-2를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글

을 읽고 다시 보라 "위 그림은 달마시안(점박이 개) 한 마리가 공원의 나무 밑에서 땅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고 다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그림 1-2

위의 문장을 읽고 다시 그림을 들여다보라 개가 보이는가?(개의 머리가 그림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속의 달마시안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 기억 속의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달마시안을 본적이 없거나

혹은 땅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는 개를 본적이 없다면 아마도 이 그림 속에서 개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맥락과 기억은 우리 일상생활의 배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가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보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맥락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리라는 예상을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대상을 마주치는 시간적 맥락

과 공간적 맥락도 그 대상을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적 역할과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맥락이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특정 장면에 관한 기억 정보가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그 상황에 즉각 이용될 수 있도록 머리 속에 조직되어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억 속에 저장된 선행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대상을 항상 눈 혹은 귀, 코, 혀, 몸으로 인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기억으로 인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인식하는 존재는, 사실은 현상으로서 '있는 듯이 보일' 뿐이라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가 일으키는 번뇌에 흔들리지 말라고 수많은 경전으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다.



프로와 아마의 차이

추석 연휴에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피아니스트>를 보았다. 이 영화를 다시 찾아본 것은 생사의 기로에 선 주인공 슈필만이 독일군 장교 호젠펠트 앞에서 연주한 '쇼팽 발라드 1번'을 듣기 위해서였다.

얼마 전 '클래식의 대중화'를 선언한 피아니스트 조은하의 콘서트 '배꼽살롱'에서 쇼팽 발라드 전곡을 감상했다. 쇼팽의 발라드 네 곡 모두를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연주를 다시 듣고 싶었지만 영상을 구할 수 없었고, 대신 떠올린 것이 영화 <피아니스트>였다.

영화의 클라이맥스, 참혹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피처에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독일장교 호젠펠트의 연주 지시에 슈필만은 손을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럽게 건반에 손을 얹는다. 슈필만은 G 마이너의 색채를 살짝 흐리기 위해 강력한 저음의 C로 연주를 시작한다.

가냘프고 느린 초반의 연주는 마치 피아니스트의, 아니 나치 독일에 무참히 짓밟힌 폴란드의 울음을 닮아 있다. 연주가 진행될수록 피아니스트의 불안과 두려움, 독일군 장교의 복잡 미묘한 감정이 어우러진다. 절정을 지나자 점차 부드러운 선율은 피아니스트의 호흡과 어울려 불안과 두려움을 고요와 무상의 세계로 이끈다. 피아니스트도, 관객도 마치 명상을 하는 듯하다. 전쟁과 음악의 묘한 하모니다.

영화를 통해 음악을 듣다 보니 귀는 소리에 빠져 있어도 눈은 배우의 손에 머물러 있다. 창으로 스민 햇빛이 피아니스트의 왼손에 앉아 있다. 피아니스트의 손이 명(明)과 암(暗)으로 나뉜다. 왼손이 밝음이라면 오른손은 어둠이다. 피아노의 검은 건반과 흰 건반, 어쩌면 선과 악, 극락과 저승의 대비를 보여주는 듯한 섬세한 연출이다. 피아니스트의 손이 그 경계를 넘나들며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조은하의 피아노콘서트에서도 반짝이는 손가락을 보았다. 지정석이 아니었던지라 일찌감치 연주장으로 가 연주자의 손가락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연주가 시작되기 전 인사

를 하는 그의 이마와 콧속에 붙어 있는 밴드가 보였다. 그때부터 '왜?' 하는 궁금증이 머릿속에 파리를 틀기 시작했다.

궁금증은 연주를 듣는 내내 풀음을 방해했다. 하지만 불편해보이는 피아니스트는 연주에 흠뻑 빠져 있었다. 발라드 1번이 끝나자 농담을 섞은 유쾌한 진행 멘트로 발라드 2번을 설명하고 다시 연주에 몰두했다.

그 즈음에야 나도 잔잔히 흐르는 선율과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에 집중할 수 있었다. 2번 연주가 끝나고 3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코밀에 붙어 있는 밴드에 핏물이 살짝 배어 나왔다. 많이 불편해보였다. 연주를 듣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코밀의 밴드를 적시는 핏물과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콘서트가 끝났다.

연주회가 끝난 뒤에야 연주장 오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들었다. 동승했던 가족과 함께 앰بول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가 연주회를 위해 부득불 연주회장으로 왔다는 것. 그래서 엄마는 오지 못했다고, 피아니스트는 어머니의 지인 관객들에게 대신 인사를 전했다.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목과 허리, 특히 손가락까지 다친 피아니스트는 아픈 몸뿐 아니라 정신을 가다듬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프로란 이런 것이 아닐까. 연주회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킨 것. 비단 관객과의 약속 때문만이 아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영화 속 슈필만의 연주처럼, 나라 잃은 자의 심정으로 연주해보겠습니다'라는 멘트를 준비한 젊은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이 닿은 건반 위의 핏자국 같은 것. 프로를 만드는 건 그런 열정과 의지일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 정작 중요한 연주를 놓친 아마추어 같은 실수가 아쉬웠던 하루였다.

<시인 김정수>



연방이로 18

죽음이란 무엇인가③ _죽음을 앞둔 사람의 심리적 변화

법상정사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생활 여건이 좋아져도 인간으로써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 죽음학과 호스피스 개척자인 시카고대 정신과 의사 퀴블러 로스는 노화든 질병이든 죽음을 앞두고 되면 몇 가지 심리적인 단계적 적응 과정을 보인다고 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심리를 바라본 것이기에 매정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앞으로 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을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고 죽음을 위협 있게 맞도록 도와주기 위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는 경우이든지 또는 질병을 오래 앓아온 임종환자의 경우이든지 죽음을 맞이한 기간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죽음이란 통고 앞에 다음과

같은 5단계의 심리적인 수용과정을 거치게 된다.

1단계 - 충격과 부정(Shock and Denial): 죽음이 앞에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된다. 또한 믿지 않으려고 하며 진단 과정이 잘못되었거나 그 외에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2단계 - 분노(Anger): 죽음을 확인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단계로 '왜 내가 죽어야하는가?'라는 반응을 보인다. 신(GOD)을 원망하고 운명을 저주하고 가족, 친구, 의사, 병원 등 주위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낸다.

3단계 타협(Bargaining): 신(GOD)과

타협하려고 하거나 임원 중일 경우 의사, 가족 등과 타협하려고 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종교 단체 등에 헌금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다짐과 약속을 한다.

4단계 - 우울(Depression): 타협으로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우울해 하고 위축되며 자살도 고려한다.

5단계 - 받아들임(Acceptance):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받아들이는 단계로 용기 있게 죽음과 사후의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때 종교적인 신앙이 큰 힘이 된다.

이상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환자를 가

까이에서 보는 가족이나 의료진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가까운 가족의 죽음은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렵다.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사실을 통고하는 역할을 가족이 할 것인가 의사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존재한다. 또한 자신의 병 상태가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를 원하는 가족들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환자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기를 꺼리는 면이 있다. 이런 경우 그 개인이 처하고 있는 심리적인 면, 질병에 대한 인식과 죽음을 인정할 능력 여부 및 안정감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얘기해야 한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

수인사 교도

수인사 김장김치 이웃 나누기 기금마련 김치 판매

새우젓 배추김치 10KG - 5만원
갓김치 2KG - 2만원

김 장 일 | 11월 23일(토) (11/25일부터 배송합니다)
구입문의 | 수인사 : 054. 247-7613, 박금화 : 010-7531-3786
입금계좌 | 수협 : 2010-0891-3756 (재)불교총지종유지재단

MSG를 사용하지 않고 국산재료로만 김장하여 오래 두고두고 먹을수록 더욱 감칠맛이 납니다. (첫맛이 다소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양념을 사용하지 않아서입니다)

수인사는 매주 무료급식과 매월 말일 자성일 반찬도시락 나누기, 11월 김장김치 나누기와 할매 할배 효잔치, 동지팥죽 나누기 등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시 찬조해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김장김치 판매금 전액은 김장김치 나누기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

수계사 남해 정사



서리가 내린다는 뜻의 상강은 양력으로 10월 23, 24일 즈음이 된다. 태양의 황경이 210°되는 때이다. 이 시기는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대신에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때이다. 따라서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 서리가 내리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첫 얼음이 얼기도 한다.

이 무렵이 되면 농촌의 들에서는 가을걷이로 분주해진다. 벼를 베고 타작을 하며, 벼를 베어낸 논에는 다시 이모작용 가을보리를 파종한다. 누렇게 익은 종자용 호박을 따고, 밤, 감과 같은 과실을 거두어들이며, 조, 수수 등을 수확한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마지막 고추와 깻잎을 따고, 다시 고구마와 땅콩도 캔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정성 들여 가꾼 것을 이때에 비로소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그야말로 수확의 계절이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때가 바로 상강 무렵인 것이다.

이모작이 가능한 남부 지방에서는 보리 파종을 하는 시기이다. 농가의 속담으로는 '상강 90일 두고 모 심어도 잠곡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이모작을 해도 쌀이 낫다는 뜻이다. 상강을 90일 앞둔 날이라면 7월 25-26일이 된다. 물론 모내기로는 매우 늦은 시점이지만, 이모작 지역에서 상강이 절기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마늘을 심기도 한다. 또 이때는 국화가 피기 때문에 국화주, 국화전, 화채 등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제철 음식으로는 추어탕, 무 흥시채, 생강차, 호박죽, 햅쌀밥, 약밥, 토란, 고구마, 달걀찜, 잡곡, 은행 등이 있다. 특히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에는 전어가 맛있다.

제철 과일로는 배, 감이 있다. 가을 배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변비에 좋고,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도 있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 먹으면 효과 만점이다. 또한 감은 아미노산, 비타민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들을 갖추고 있다. 몸의 저항력을 높이고 항산화, 피로회복, 감기예방에 도움이 된다.

조선시대에는 군령권을 상징하는 군기(軍旗)인 독(毒) 앞에서 상강 때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를 독제(毒祭)라고 하는데, 소사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행면에서는 격식을 한 단계 올려서 제수도 다른 소사보다 더 풍성하게 차리고 제관도 한 직급 올려서 병조판서가 맡았다. 독(毒)은 고려와 조선시대 때 국대의 행렬 앞에 세우던 대장기이다. 큰 삼지창에 검은 소의 꼬리털로 만든 치우(蚩尤)를 달아 그 깃발을 독기라고 부르며 신성시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 충렬왕 7년(1281) 몽골의 2차 일본 원정에 고려군이 동원될 때 총정하기 전 궁문에서 국왕이 독제를 처음 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제사는 유일하게 무관들이 주관하여 지내는 제사였다.

중국에서는 상강부터 입동 사이를 5일씩 삼후로 나누어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를테면 초후는 승냥이가 산짐승을 잡는 때, 중후는 초목이 누렇게 떨어지는 때이며, 말후는 겨울잠을 자는 벌레들이 모두 땅속에 숨는 때라고 한다. 김형수의 '농가십이월속시'에도 한로와 상강에 해당하는 절기의 모습을 "초목은 잎이 지고 국화 향기 퍼지며 승냥이는 제사하고 동면할 벌레는 굶히니"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 중국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을 떠나며

진관

집을 떠나야 한다
집을 떠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는 인연
그래서 집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부러웠다
스님이 말하는 소리에 쌀 한 되를 주는 것을 보고
나도 일하지 않고 쌀을 얻어 내는 스님을 따랐다

어느 겨울날 스님이 왔다
시주를 하시지요
시주를 해야 장수합니다
그러한 스님의 말소리를 듣고는
어머니는 스님에게 쌀을 시주했다

스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어머니는 말리지 않고 오히려
스님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로 나는 집을 떠났다



진관스님, 1976년 《시문학》으로 등단 / 인정사정없던 출가사문이 되어 세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에 어머니라는 이름을 불러 보기는 처음이다. 출가한 수행자의 심정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시집에 담았다. '어머니의 눈물'(문학공간시선, 2019. 8월 발행) 중

불교와 드라마 1987년도 <토지>

도덕의 틀을 깨고 원시적 인간을 보여준 '임이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탤런트 박원숙씨가 나오는 토크쇼를 보게 됩니다. 박원숙씨는 <토지>의 '임이네'라는 역할을 자신의 대표작으로 꼽더군요. 원작자인 박경리 선생님이 자신이 표현한 '임이네'에 대해 극찬했다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임이네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여자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었습니다. 남편 칠성이 있음에도 옆집 남자 용이에게 은근히 추파를 보냈습니다. 용이에게는 강경대이라는 부인이 있고, 또 월선이라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기에 자신이 비겁고 들어갈 틈이 없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용이의 첫 아들 흥이를 낳음으로써 자신의 자리는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가장 견고한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이 들면서는 용이에 대한 욕망과 집착은 돈에 대한 갈구로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월선의 국밥집에서 일했는데 월선 몰래 돈을 빼돌려 이자놀이를 해서 배게에 숨겨두었는데 용정에 대화재가 나면서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돈이 소멸할 상황이 닥치자 그녀는 불길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미친 듯이 배개를 찾던 모습은 그녀의 돈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이네가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질긴 생명력을 가진 그야말로 잡초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질긴 집착과 생명력이 끔찍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박경리의 원작 <토지>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광복까지 최첨관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동 평사리와 중국 용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군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대서사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서희와 길상, 상현의 삼각관계, 용이와 월선의 순애보적 로맨스는 매우 절절했습니다. 역사를 아우르면서도 뛰어난 러브스토리가 있기에 이 소설은 한해속이 최서희로 나왔던 1979년 <토지>, 그리고 최수지가 최서희역을 맡았던 1987년 <토지>, 그리고 김현주가 서희로 나왔던 2004년 <토지> 등,

30여 년 전에는 임이네를 악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생충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야말로 최선을 다해 살아남은 우리 민중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임이네와 비교되는 인물이 함안댁입니다. 둘 다 최첨관대 장남 최치수 살해사건에 연루돼 사형된 남편을 둔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딸린 불쌍한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둘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살인죄로 죽음을 당하자 함안댁은 최첨관대에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둘을 남겨두고 목을 매 어 죽었습니다.

반면 임이네는 남편 칠성이 살인에 가담했다가 사형당하면서 아이 셋과 함께 평사리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팔았지만 그녀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불쾌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기 보다는 숫아날 구멍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을 찾아냈습니다. 옆집 남자 용이입니다. 남편 칠성이 있을 때부터 잘생기고 점잖은 용이에게 늘 마음이 있었습니. 용이가 자신에게 마음이 없고, 엄마가 반대하는 여자 월선에 대한 사랑으로 반민하는 것을 알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거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관심 있는 건 용이의 아내가 돼서 평사리서 쫓겨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거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목적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결코 절망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고, 결국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임이네는 함안댁과도 달랐고, 월선이나 용이와도 결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임이네를 악인으로 여겼는데 살만큼 살고 보니까 그녀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기적이기는 했지만 그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 것 뿐이었습니다.



다. 평탄하고 기름진 땅에서 무난하게 살았다면 그녀는 굳이 그렇게 악다구니를 부리며 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돌밭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토지>에는 무려 6백 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최서희나 김길삼처럼 주인공급의 캐릭터도 있는데 내게는 토지에서 임이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임이네는 낯설면서 신선한 캐릭터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니, 도덕이니, 죄의식이니 하는 틀을 깨고 원시적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유기고가 김은주>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8월 21일 ~ 9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전세형	9/5	30,000	법황사	유승태	9/7	10,000	지인사	승효제	8/26	10,000
건화사	법상	9/20	10,000		박미경	9/18	10,000	초록어린이집	이지희	8/26	50,000
관성사	황성녀	8/27	10,000	벽룡사	이필선	8/29	10,000	총지사	홍수민	9/16	10,000
	인선	9/20	20,000		승원	9/20	10,000		최영아	9/16	10,000
기로스승	해정	9/4	10,000	사원명무기명	묘원화	9/20	10,000	총지중보	박재원	8/23	30,000
	상지화	9/20	10,000		남영애	9/2	30,000	통리원	김평석	9/20	10,000
	수중원	9/20	10,000		박필남	9/11	10,000	화음사	우인	8/26	10,000
	밀공정	9/20	10,000	김갑선	9/19	10,000	보명심		8/26	10,000	
	총지화	9/20	10,000	성화사	이학열	9/19	20,000		무명씨	8/30	20,000
	법수원	9/20	10,000	수인사	이필선	8/26	20,000		강정이	9/4	10,000
	선도원	9/20	10,000			정순득	8/27		10,000	강승훈	9/10
	법지원	9/20	10,000	실지사	덕광	9/20	10,000		강승민	9/10	5,000
	일성혜	9/20	10,000		보현	9/20	10,000	최영미	9/10	50,000	
	사홍화	9/20	10,000		연동원	9/20	200,000	무명씨	9/17	10,000	
	안주화	9/20	10,000		유승우	9/20	10,000	홍곡사	지정	8/26	20,000
	진일심	9/20	10,000	정경자	9/20	10,000					
시각화	9/20	10,000	운천사	혜봉	9/6	10,000					
법선	9/20	10,000		정원심	9/6	10,000					
동해사	정정희	8/28	5,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8/26	50,000				
	록경	9/10	10,000		구미자	9/2	10,000				
	법수연	9/10	10,000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9/10	50,000				
밀인사	이혜성	9/17	10,000	정각사	변순개	9/2	10,000				
	반야심	9/2	10,000		도현	9/10	10,000				
	법경	9/20	10,000	정심사	무명씨	9/20	20,000				
	덕현	9/20	10,000		화령	9/20	20,000				

동해중 교장 인터뷰

“사람은 아는 만큼만 꿈을 꿀 수 있다.”

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장 만들것



동해중학교 신입 송인근 교장

2019년 9월 1일 동해중학교 새 학교장으로 송인근 선생이 임명되었다. 송 교장은 지난 1989년 3월 수학교사로 동해중학교에 첫 부임하여, 교육과정 부장, 학생 부장, 진로 부장, 교감 등을 거치며, 30년 간 학생 교육과 지도, 학사 운

영과 학교 행정을 두루 섭렵, 학교법인 관음학사 제 186차 이사회에서 교장으로 선임되었다. 신입 학교장으로서의 교육 철학과 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직접 들어 보았다.

Q. 먼저 학교장에 임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학교 경영이라는 막중한 소임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 하는 학교의 학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A. 사람은 아는 만큼만 꿈을 꿀 수 있다고 합니다. 조건이 갖춰져서 꿈을 이

루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동해중학교 학생들이 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Q. 임기 내 가장 역점을 두는 교육 사업은 무엇입니까?

A. 학교 교육 사업으로는 ‘학력 신장, 인성 교육, 진로 교육 강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학기부터 전 분야에 걸쳐서 매년 조금씩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동창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Q. 동해중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우리학교가 지역에서 단지 ‘공부 잘하는 학교’로 평가 받는 것을 넘어, 수많은 졸업생들이 동해중학교에서 갖고 닦은 실력과 소양으로 각계각층에서 리더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Q. 동해중학교는 불교총지중 종립학교입니다. 종립학교 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종립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교 교직원 불자회와 불교어머니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교직원 불자회는 매월 1주 자성일에 정각사 불공에 참여하고, 불교어머니회는 현재보다 많은 회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우리 학생들은 동해의 희망이자 꿈입니다. 넓게 펼쳐진 세계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조적 가치관을 지닌 창의융합형의 동해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이 신명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해중=박재원 기자>

‘바른 실천, 바른 깨달음’ 화음으로 찬탄

2019 정각음악제, 10월 26일 2시, 부산 정각사



‘바른 실천, 바른 깨달음’을 화음으로 찬탄하는 불교총지중 2019 정각음악제가 오는 10월 26일(토) 오후 2시부터 부산 정각사(주교: 도현 정사) 3층 서원당에서 열린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정각음악제는 종단을 떠나 지역 사회의 불교 합창단이 참가하여, 한 목소리로 법음을 전파하는 자리다. 정기적인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불교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 사회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하게 함께 즐기는 공연을 떠나 생각을 깊이하고 삶을 되새기는 자리의 문화행사가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연대식을 높이고, 정각사와 불교총지중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알리고, 포교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음악제는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을 비롯

해 흥법사 합창단, 진각중 합창단, 해원정사 합창단, 범어사 합창단 등이 참석하여 공연할 예정이며, 정각사 발법팀, 동해중학교 댄스팀과 특별 국악공연으로 어울림 한마당을 이끌어 낸다.

정각사 야외에는 이미 공연 시간 전부터 전통 차와 다과 나눔의 자리가 펼쳐지며, 팝콘, 솜사탕 등 먹거리, 추억의 책가방 포토존, 행운의 톨렛게임이 마련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높여 줄 예정이다.

지역주민은 물론 종단 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점심 공양이 제공된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경품 추첨과 기념품 나눔이 있으며, 공연은 무료다.

정각사 주교 도현 정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도들에게는 애중심을, 일반인들에게는 정각사와 총지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참가문의=051-552-7901>

사제 동행 사진전, ‘거기에 아이들이 있었다.’

11월 19일, 동해중 하봉걸 미술교사 정년 기념

2020년 정년퇴임을 앞두고 36년간 교직 생활을 되돌아보고 제자들과 함께 한 추억을 마무리 하는 하봉걸 미술교사(동해중학교, 미술과)의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하선생의 4번 째 사진전 ‘거기에 아이들이 있었다.’는 하선생과 함께 그림과 사진을 공부한 제자 13명과 ‘사제동행’ 의미로 전시와 사진집을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주제도 학생들을 소재로 미래의 희망을 담았으며, 특히 대부분 인도차이나 반도의 아이들을 피사체로 삼았다.

하교사는 “인도차이나 반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정신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다.”며 “순박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입시경쟁에 내

몰린 우리 아이들이 모습이 생각나 많이 안타까워 이렇게 살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시회를 소개했다.

오는 11월 19일(화)부터 11월 23일(토)까지 5일간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부산진구 소재)에서 열리는 금번 전시회는 11월 20일(수) 17시 30분 오픈 세레모니가 시작된다.



동해중학교 하봉걸 미술교사



어울림소식

총지사 손경옥 교도 모친 안희 보살께서 지난 9월 8일 소천하셨습니다. 가족 모두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삼가 고인의 왕생극락을 발원합니다.

총지스케치

김흥근 작가 총지사 교도



불교총지중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중 불공 일정

Table with 2 columns: 불공명 (Name of the service) and 일정 (Date/Time). Includes items like 공식불공, 자성일불공, 월초불공, 새해불공, 종조탄신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부처님오신날,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해탈절(우린분절), 종조멸도절, and 학교절.

불교총지중 연중 불공

Table with 2 columns: 불공명 (Name of the service) and 설명 (Description). Includes 새해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월초불공, 자성일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Table with 4 columns: 사원명 (Name), 우편번호 (Postal Cod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Lists various member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Daegu, Seoul, and Busan.

부산 포교의 중심지 법성사

절찬리 분양중

법성빌딩(가칭)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지하철 1호선(부산역) 3분거리
- 부산항바다, 남항대교 조망
- 인근 관광명소 다수
- 인근 우수학군
(부산고등학교, 부산중학교)
- 안전한 치안
(초량지구대1분거리)
- 편리한 생활권
(초량시장1분거리, 대형마트1분거리, 롯데백화점 지하철로 2정거장)
- 입주민전용 헬스장, 세탁실
- 프리미엄급 옵션 제공
한샘키친시스템
LG휘센스마트천장형에어컨
친환경동화자연마루시공
실크벽지
불박이장
LG공기정화시스템(전열교환기)
내진설계
- 옥상하늘정원

아파트 | 23세대 (2Type)

오피스텔 | 34호 (3Type)

법성빌딩

지번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동 422-2

도로명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59-1



문의 051-468-7164